

나는 행복할꺼야!

나와 다른 이들안에 계신 하느님을 소중히한다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태오 5,8)

말 속의 말

마음: 유대인들에게 ‘마음’이란 단어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의도의 중심을 가르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 존재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과 양심안에 가면 없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위선없이 형제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목표

-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보호해야할 매우 귀중한 재산임을 알게된다.
- 사람들 사이에 순결의 개념을 더 깊게 알아보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한다.

어땠나요?

처음에는 수용의 단계가 와야 한다. 여기서는 체험과 직접 겪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환영을 받고 어색함 없이 마음편히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했던 모임때 결정했던 목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다시 되물어보는 것도 좋다.



모임을 여는 활동

종류: 디지털 포토 작업

소요시간: 그룹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까지 최소한 한시간

준비물: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폰, 포스터용 종이, 색 매직 펜, 가위, 프린터

전개방법: 필요하다면 소그룹으로 나눈다. 작업에 맞는 이상적인 숫자는 5-6명이다. 참가자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몇장 찍는다. 그 다음에 사진을 인쇄하고 포스터에 붙일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의 의미를 합축할 수 있는 제목을 생각해 본다. 순결한 삶을 본보기로 삼고 동의하는 표시로 참가자들은 포스터에 각자의 이름(싸인)을 적을 수 있다. 또는 인쇄하는 대신에 참가자들은 PPT를 실현할 수 있다. 자신들이 직접 찍은 사진 외에도 인터넷에서 작업에 유용한 이미지나 글귀를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순결한 삶이 단지 우리들의 성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관련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사는 방식으로 자신과 다른이들이 지닌 자유와 존엄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

일단 작업을 마치면 각 소그룹은 다른이들에게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 선택의 동기, 작업 제목, 또는 포스터나 PPT에 넣은 말이나 문장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할 수 있다.

결론: 대화의 공간을 연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작업을 통해 우리가 새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점이 재미있었나요?” “이 진복팔단의 요점을 실행에 옮기는 데 일상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살아요

갈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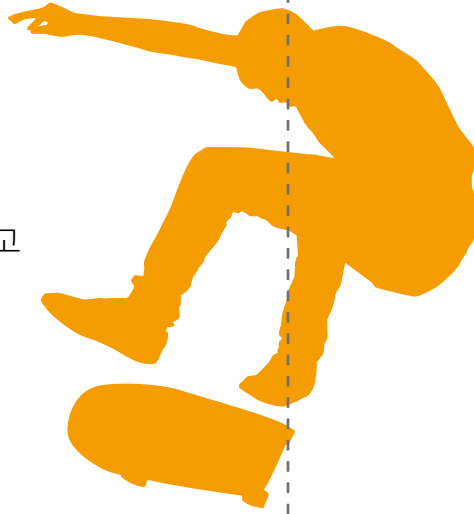
저는 항상 자유를 갈망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스케이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여름 방학때는 스테이트장에서 하루종일 살았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던 친구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혈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술에 취해 스케이트를 신고 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늘 술에 취해 서로 싸우기가 보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진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멀리 못가 저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한 친구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저희집에 찾아와 저희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어머니들이 말하는 동안 저는 방안에 갇혀있었습니다. 나쁜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정말 모든 것이 나쁘게 끝났을 것이라는 것도. 저는 갈림길 앞에 서 있었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친구, 즉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냐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울리던 환경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지만 지금 저는 그것에 얽매여 있지않고 오히려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N. 네델란드)



폭력적인 TV에 NO!

우리 가족안에도 tv 중독이 서서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면서 자주 싸웠고 학교에 흥미를 잃은 대신 tv에 출현하는 사람들을 흥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tv의 노예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더이상 행복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 메세지들은 우리 내면에 사랑을 훔쳐가며 우리에게 족쇄를 채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달 동안 tv를 보지 않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깨끗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같았습니다. 모두의 동의하에 TV를 옷장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시간이 날때마다 TV를 보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었고, 함께 산책을 하던지, 즉석에서 연극을 꾸미고, 친구를 찾아가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누군가는 엄마를 도와주며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소식을 알기 위해 신문을 읽던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모두의 학교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TV를 보지 않았는지 계산했더니 2년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로 부터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현재 TV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TV를 키고 함께 봅니다.

(P. - 브라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깊이있게


하느님의 동반을 즐기자



끼아라 루빅, 3젠 대회, 산상수훈, 1975년 6월 20일

한 소년이 솔직하지 않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에 앞서 자신의 이해만 찾길 바라며, 마음이 온갖 나쁜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이 소년은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사랑, 자비, 순결, 솔직함, 예수님과 그분의 법률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끊어버리는 생각을 마음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야 말로 피조물 중 가장 마음이 깨끗한 분이십니다. 개인적인 이해 없이 재물이나 자신에 대한 계획조차도 애착없이 단지 하느님 뜻만을 있을 뿐입니다. 성모님은 천국에서만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셨을 때에도 하느님이 그분으로 부터 세상에 나오시고 한 집에서 그분과 사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인들과 마음을 깨끗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많은 소년 소녀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매우 가까이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 듣고, 일어나는 사건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며, 또한 어려운 때에도 함께 해 주시는 그분의 동반을 기쁘게 즐기니다. 

참고: 웹사이트 <http://assistentigen3.focolare.org> 에 비디오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안에 있는 하느님...
나를 행할거야!
나와 다른 사람안에 있는 하느님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종종 가족과 친구들로 인해 알코올, 담배, 마약 또는 폭력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상황에 저희는 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들에게 동참하지 않는다며 저희를 위협하고 조롱

합니다. 시대사조를 거슬러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한 비밀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전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환경에서 하느님이 본래 원하신 여성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끼아라 루빅, 멕시코 시티, 1997년 6월 8일 - 공동체와 질문 답n°4

이렇게 모순적인

현실에서 남아 있기 위한 비밀은 이상을 사는 것과 진들과 전 사업회와 뭉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문화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사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존엄성을 되돌려 주기 위해선 더욱더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는 또다른 과달루페의 작은 성모님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은 여성이고 모두가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



세상에 하느님이 유행으로 돌아오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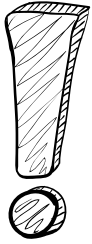


끼아라 루빅, 로까디파파, 1976년 3월 27일, 흰색3젠 대회, n°3

우리는 세상에 혁명을 가져가야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진짜 혁명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갖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유행이 되어 되돌아 오게 해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순결, 모든 덕이 유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진복팔단을 유행처럼 퍼뜨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유행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유행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이 유행이, 이 새로운 유행이 지금은 없지만 젠들을 통해 다시 살아나 번지게 될 것입니다. ✨

...만일 수 있을 때에 그의 하느님
행복하게!
나와 다른 사람안에 있는



한번 시도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나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쏟아지는 광고, 방송 등이 반대되는 삶을 제안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 생각을 나누며 다음 모임 때까지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임무를 정한다. 예를 들면:

- 매일, 복음(*)이나 생활말씀을 읽거나 또는 단순히 기도중에 **10분간 나와 하느님과 관계**에 대해 묵상하고자 노력한다. 노트에 일어난 일과 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담을 적어 다음 모임 때 친구들과 나눈다.
- (*) 제안한 복음은 진복팔단에 관련된 구절이다: 루카 11, 34-36; 요한 15, 1-11; 로마서 13,11-14
-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나는 이들을 존중하며 대할 것이다.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매일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 부딪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변화는 메모해 두자. 다음 모임에 체험을 나눌때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삶안에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일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며, 만나는 어려움 중에서 그분의 도움을 느꼈는가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나의 영혼 상태는 어떠했나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느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나요?

보조자 공간



모임 후 평가하기

- ① 제안한 활동을 통해 3젠들은 진복팔단에 대해 흥미를 더 키웠습니까?
- ② 3젠들 사이에서 특별히 깨끗한 마음을 살기가 힘든 분야가 두드러져 나왔습니까?
- ③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3젠들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결심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모임때까지 그들을 동반하고 지탱하는데 집중합시다.
- ④ 모임에서 다룬 주제가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음 모임때 다루어야 할 부족한 점이 남아있습니까?
- ⑤ 모임 진행 중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음번 모임을 향상시키기위해 염두해야할 것이 무엇입니까?